

 금융위원회	<b>보 도 반 박 자 료</b>	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한국판뉴딜 전환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
	 금융감독원	보도	배포 시	

책 임 자	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이 동 엽(02-2100-2960)	담 당 자	노 소 영 사무관 (02-2100-2962)
	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양 해 환(02-3145-7460)		조 한 선 팀 장 (02-3145-7466)

**제 목 : 실손보험 인상률 및 ‘보험료 이원화’ 등 관련 보도된  
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.**

**[조선일보 12.28일자 보도에 대한 반박]**

**1. 기사내용**

□ 조선일보는 12.28일 「제2의 건보 ‘실손보험’…2730만명 보험료 내년엔 16% 오른다」 제목의 기사에서

- ① “내년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률이 가입시기에 따라 평균 9~16%로 정해질 예정이다.”
- ② “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보험업계가 요청한 수준의 60%로 조정하라는 ‘의견’을 제시했다.”
- ③ “금융위는 내년 이후 실손보험 보험금을 받아간 고객의 보험료는 많이 올리고,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고객의 보험료는 적게 올리는 ‘보험료 이원화’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”라고 보도

**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**

- 금융위가 업계가 요구한 수준의 60%로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조정하라고 의견을 제시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.
- 또한, ‘보험료 이원화’ 등의 명칭은 금융당국에서 언급한 바 없으며, 제도 방향성도 정해진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